

ECONOMY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JB금융지주, 1분기 순익 6% 감소...연체율 빨간불

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인쇄 소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지원하는 '지역 소공인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호남 최대 인쇄기업 집적지인 서남동 일대의 인쇄 소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와 매출향상이 목표다.

인쇄지원센터는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상세페이지 제작을 비롯해 전시·박람회 참가, 시제품 제작 등 마케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친환경 소재 인쇄 상품 보유기업, 친환경 인증기업은 우대한다.

또 국내 유명 전시회에 공동홍보관을 마련해 지역 인쇄 소공인의 우수 인쇄 기술 및 상품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쇄물 온라인 플랫폼 '활자활' 운영, 바이럴 마케팅, 소시지 발간 등 인쇄 업계 홍보마케팅도 이뤄진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지역 인쇄업계의 지속 가능한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소공인의 성장기반 마련과 인쇄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아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1628억원...광주·전북은행 전년비 8%이상 ↓

경기악화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명퇴금 증가

시중은행이 역대급 호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작년보다 6.0% 감소한 1628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과 대손충당금 확대 등 자

산건전성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얼어붙은 지방 경제가 본격적으로 지방은행의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J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1628억원의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을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 감소한 수치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6%,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99%를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용(잠정)도 전년말 대비 0.07%p 개선된 12.28%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각각 670억원과 5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8.6% 감소했다. 대손충당

금 추가 적립, 명예퇴직금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또 JB우리캐피탈이 585억원, JB자산운용 29억원, JB인베스트먼트 1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손자회사인 캄보디아 프놈펜산업은행(PCBank)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0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JB금융 관계자는 "계열사들은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분쟁 고조 및 정치 불안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경

영 환경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1분기에 총당금 추가 적립, 명예 퇴직금 증가 등 일시적 특이요인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현금 16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 주거래 고객 우대예금 출시

거래 실적 따라 최고 연 2.67% 금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거래 실적에 따라 주거래 고객에게 더 큰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KJB주거래우대예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KJB주거래우대예금'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예금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17%에 우대금리를 최고 연 0.50%p(포인트) 더해 최고 연 2.67%의 금리를 제공한다. (4월 24일 기준) 우대금리 조건은 △광주은행 입출금계좌 평균잔액 100만원 이상 연 0.10%p △광주은행 정액적립식 적금 계좌 보유 연 0.10%p △연금,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중 월 1건 이상 입금실적 보유 연 0.10%p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 300만원

이상 연 0.10%p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축하 우대금리 연 0.10%p이다.

가입금액은 고객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선택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은 물론 광주 외백, 인터넷뱅킹,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특히 가입 기간 중 1회에 한해 일부 금액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일부해지 기능'을 제공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전액 해지 없이 나머지 금액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부동산 거래 절벽에 광주 땅값 오름세 '주춤'

0.41→0.40→0.33→0.21% 4분기 연속 둔화

광주지역 땅값이 4분기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역 부동산 경기 거래절벽에 갇혀 깊은 침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자가변동률은 0.21%로, 직전 분기(0.33%) 대비 상승폭이 0.12%p 축소됐다.

이에 따라 광주의 자가변동률은 지난해 2분기 0.41%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분기 연속(3분기 0.40%→4분기

0.33%) 상승폭이 줄고 있는 추세다.

또 지난 2023년 3분기(0.05%) 이후 최저 상승폭이다.

전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1분기 전남의 자가변동률은 0.14%다. 직전 분기(0.24%) 대비 0.1%p 줄었다.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0.30%로 보합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3분기 0.23%로 상승폭이 감소, 이후 계속해 내리막이다.

비교해 광주는 높고, 전남은 줄었다.

올해 1분기 광주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1만479필지, 전남은 2만8279필지다. 전년 동기 대비 광주는 26.7% 증가한 반면, 전남은 13.9% 감소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1분기 평균 거래량과 견줘서는 광주(5만3493필지)는 80.4%, 전남(15만9600필지)은 82.3% 각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는 2312필지로, 전년 같은 기간(1270필지)과 비교해 81.9% 증가했지만 전남은 12.4%(2만2585필지→1만9776필지) 줄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매일) 웃음치료(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 ✓ 넓은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 맞춤형 전문케어 (치매, 파킨슨: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1:1)
- ✓ 축탁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축 고급 실내 음악(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릭 영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ACQUA DI PARMA

THE ART OF G

광주신세계 '봄내음 담긴 향수 만나보세요' 광주신세계가 봄을 맞아 산뜻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신상 향수들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본관 2층 불기리 퍼퓸 매장의 '알레그라 피오리 다모레 오드퍼퓸',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자아 오드 코롱', 크리드의 '엘라디리아', 이탈리아 니치 향수브랜드 아쿠아 디 파르마의 '본조르노' 등의 다양한 퍼퓸행사가 열리고 있다.

"AI산업 발전·인재양성 교두보 역할"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인공지능산학연협회장 취임

정지성 대표가 이끄는 에스오에스랩은 자율주행 차량을 비롯해 로봇,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정형 3D 라이다 및 2D 라이다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전남도는 미 상호관세 부과에 따라 지역 석유화학 및 철강 등 트럼프 발 관세 피해(우려) 기업 대상 긴급 경영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계 피해(우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경영안정자금 이자 이차보전(2.9%p)을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자금지원은 전남도중소기업기업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55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의 보증수수료를 경감한다. 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600)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연초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을 6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차차액(1.5~3.5%p)을 지원 하는 등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